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평양속도를 창조하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

박 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에 평양시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영웅적투쟁을 벌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수도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수많은 살림집과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으며 기적적인 평양속도를 창조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130페이지)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솟구쳐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평양속도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조립식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여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도록 하시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은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은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전쟁기간 8 70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파괴되고 37만여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60만호의 살림집, 5 000여개의 학교, 1 000여개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개의 극장과 영화관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후생시설들이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전후 파괴된 공장, 기업소와 농촌경리를 복구하고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며 현대적인 문화시설들과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자면 건설사업을 선진적이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월 전국건축가 및 건설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건설을 공업화할데 대한 조립식건설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부채산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콘크리트부채공장을 평천리(당시)와 동평양지구에 각각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시범건설을 조직하시고 완공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조립식건설의 우월성을 현물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1월 10일 몸소 첫 조립식건물의 표준설계로 완공중에 있는 선교 21호동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의 로력적투쟁을 고무하시면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조립식건설을 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동무들이 끝내 해놓았다고, 동무들이야말로 당이 내놓은 조립식건설을 맨 처음 받아문 조립식건설의 선구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6(1957)년 5월 수도의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민주수도복구건설촉진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청년대학생들, 군인건설자들, 수도건설자들의 로력

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일일이 헤아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평양오수간선 및 서평양유보도건설공사에 동원된 원산농업대학(오늘의 원산농업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만나시여 민주수도복구건설에 참가하는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생활형편과 작업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6(1957)년 6월 오수간선공사장과 도로포장공사장을 찾으시여 김일성종합대학, 송도정치경제대학(당시), 평양의학대학(당시) 학생들과 건설자들이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맡겨진 과제를 매달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와 끝없는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조립식건설방법을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립식건설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조립식건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혁명적대책도 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으로 불러일으키시었다.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그러나 전반적대고조의 흐름에 건설부문은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오래동안 건설부문에 틀고앉아있던 반당종파분자들과 그에 추종한 보수주의자들이 조립식건설은 《시기상조》라느니, 《조선에서는 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방해해나선것과 관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6(1957)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상무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건설부문 일군들속에서 사상투쟁을 적극 벌려 반당종파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며 건설부문에 대한 검열통제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건설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함으로써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주체46(1957)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반당종파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건설을 새로운 공업적방법, 조립식방법으로 혁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원회의에서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하고 부재생산을 공업화하며 시공을 기계화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농촌과 읍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체46(195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반복침투시키는 한편 주체47(1958)년 2월 평양시건설을 성

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내각결정과 이해 3월 건설을 조립식으로 혁신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발표하시여 조립식건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립식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심으로써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립식건설방침을 관철하여 평양속도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건설에서 조립식방법으로 넘어가는것은 시공을 쉽게 하며 노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일뿐 아니라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수도복구건설의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천리마대진군의 힘찬 발걸음속에서 비상히 양양된 우리 인민, 우리 건설자들의 혁명적기세를 평양속도창조에 불려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1958)년을 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되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도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신데 이어 주체47(1958)년 1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시 건설 및 설계일군,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여러 대상의 살림집건설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1958)년 1월 건설부문 지도일군 및 평양시건설부문 모범로동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평양시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평양시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립식건설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건설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야 하며 건설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려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협의회후 설계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는 살림집을 값죽게,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하자면 조립식건설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재생산 및 시공부문의 모범로동자들에게 콘크리트부재를 만드는것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재를 공장에서도 생산하며 로천에서도 대대적으로 만들어 조립식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설계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제기하는 소박한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치하해주시면서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많은 예비들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부문 지도일군들을 부르시여 탐구된 예비를 알려주시고 방안에서만 의논해서는 탁상공론이 될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여러 건설장과 동평양지구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실물을 놓고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킬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건설을 조립식방법으로 혁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도의 건설자들은 주체47(1958)년 2월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1만 7 000세대분

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결의하여나섰으며 그것은 그후 다시 2만세대결의목표로 갱신되었다. 그들은 설계의 표준화, 부재생산의 규격화를 실현하여 대담하게 조립식건설에로 넘어갔다.

그러나 조립식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아니었다.

그때까지 보수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재를 규격화하고 공업화할데 대한 문제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있었으며 조립식시공방법을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탑식기중기를 대담하게 만들어 기중기에 의한 건설사업도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기계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조립식건설과 건설작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중기와 각종 건설기계, 많은 운수기재를 생산하여 보내주도록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평양시건설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받으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쉬임없이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도건설에서는 전례없는 대고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조립식건설방법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건설정책관철을 방해하여나섰던 반당종파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부재생산을 공업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주체47(1958)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27배에 해당하는 부재를 생산하고 2만여세대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부재를 규격별로 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생산보장하였다. 건설작업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어 주체47(1958)년 11월현재 수직운반작업의 기계화수준이 93%로 높아졌으며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 세멘트이기는 작업 등 모든 건설작업에서 기계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다. 조립식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조립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 하루동안의 부재조립량을 최고 360여개로 올리는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14~16분동안에 주택이 한세대씩 조립됨으로써 낡은 방식으로 건설하던 시기에 비하여 7.3배의 속도로 건설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양시건설자들은 주체47(1958)년 한해동안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2만 839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살림집을 14분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평양속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속에서 창조된 빛나는 결실이었다.

우리는 전후 평양속도를 창조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기수,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